東亞日報
夕刊
一月十二日(木)
發行兼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崔錫台
發行所 東亞日報社
電話 光化門 一九〇〇

首相의 一般施政要綱

財經의 戰時體制强化

銃後施設을 徹底遂行

【東京電話同盟】平沼首相

이 來二十一日의 再開된 議會에서 新內閣의 一般施政方針演說은 來十七日의 閣議에서 正式決定을 보게되기로 되었다 大體에 있어 前內閣의 政策을 繼承하야 이에 新政策을 追加할 方針인바 首相이 右演說에 있어 特히 强調할 事項은 ……

一、支那事變下에 있어서 國家는 未曾有의 大命을 拜受하여 ……

一、國民은 如何한 地位職業에 있든지라도 ……

一、現內閣은 그의 一般方針 ……

一、國內政策에 對하여는 ……

英伊會談遂開始

뮌헨四國協定後처음으로

무·쳄兩巨頭歷史的會見

【羅馬十一日發同盟】무솔리니、 쳄버렌 伊、英兩國首相의 羅馬에서의 歷史的 第一次會談은 十一日午後六時十分부터 베네치아宮에서 行하얏는바 무솔리니首相은 陪席役으로서 치아노外相을 쳄버렌英首相 亦是할리팍스外相을 各各同伴하고 무솔리니首相의 會議室에 들어갓다 이리하야 會談은 一時間二十分에 亘하야 外人은 一人도 參加지안코 續行되어 同七時四十分終了 英國兩相은 一旦宿舍 빌라 마다마로 돌아갓다 (寫眞上은 伊首相 下는 英首相)

第二次會談은 十二日午後 ……

第一次會談終了後

콤뮤니케를發表

【羅馬十一日發同盟】英伊第一次會談終了後 다음과가튼 콤뮤니케가 發表되엇다

무솔리니首相은 치아노外相同伴으로 十一日午後六時 베네치아宮에서 英國首相、할리팍스英國外相과 會見하엿다 會見은 一時間에 亘하야 行하엿는데 十二日午後再次 第一回會談을 하게될것이다

英代表歡迎晚餐會

무相會談과 英政界觀測

經濟的意義重大

獨逸의東進政策으로

歐洲의危機再來

米兩大使의報告要旨

【워싱톤十一日發同盟】……

무글라이나問題와 莫府外人觀測

【모스크바十一日發同盟】……

獨伊官紙

伯林輿論支持

【伯林十一日發同盟】……

伯林新聞界

一般的으로好感

【伯林九日發同盟】……

事變과蘇支關係

國府孫科立法院長談

【上海十二日發同盟】立法院長孫科는 去七日의 演說에서 ……

蘇、國防工業委員部를

四人民委員部에分轄

【모스크바十一日發同盟】……

貴島部隊活躍

【北京十一日發同盟】……

米、中立法改正內容

―議會消息通의觀測―

【워싱톤十一日發同盟】……

中立主義에則한

憲法修正案

米미議員下院提出

【워싱톤十一日發同盟】……

國民政府

行政機構改革

【香港十二日發同盟】……

猶太人避難民

上海에千九百人

【上海十日發同盟】……

體코軍隊又復發砲

洪國嚴重抗議

【부다페스트十一日發同盟】……

牛王廟附近

敵遊擊隊掃蕩

【太原十一日發同盟】……

白鳥新駐伊大使

무首相과會見

【羅馬十一日發同盟】十日赴任한 白鳥新駐伊大使는 十一日午前十一時 베네치아宮에 무솔리니首相을 訪問 最初의 會見을 行하였다 大使는 新任人事와 치아노外相도 加하야 約三十分間 會談하였다

카凡國務次官

米軍擴計劃痛擊

【보스톤十一日發同盟】……

治安回復이第一

梁氏의時局談

【南京十一日發同盟】……

大野政務總監

十五日渡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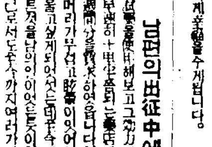
橫說竪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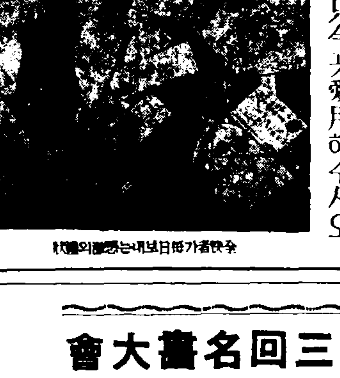
李泰俊主幹純文藝誌
文章 創刊號發賣中
京城府 文章社 發行

어째高貴藥을無代로
進呈하는지오?
婦人藥中에全快者가만한
이만큼自信이잇는良藥
을只今곳愛用해주시오

오는極寒、厥冷
이婦人病을惡化식힌다!

藥의選擇이緊要하오
專門醫의手當과同一




全快者가每日보내는感謝의書狀

無代進呈

便利한註文法

偽造나模倣藥

너무

全快者の多い婦人藥
美神丸
一服が一週間夜昼絶えまなく効く
本舖 宮內藥進堂

府民館
十四日、十五日 兩日間 (晝夜三回續映)
第三回名畫大會
主催 東洋劇場映畫部
●青春の感傷と歡喜を謳へる三大名篇●

●上映藝題●
春の調べ
湖江
乙女の湖
漢江 (全發聲)出演
◆午前十一時 始映◆
大衆奉仕料金 全館二十錢均一

夜間 青春座公演 晝間 映畫
十一日밤부터 十二日
東洋劇場
안해의가는길·世紀의家庭風景 李瑞求作 南宮春作
母の魂·女傑ダーサン

特告! 全發聲 사랑의속고 돈에울고 新春封切

ClibPDF - www.fastio.com

檢索隊의冒寒活動으로

盜堀黨또百名檢擧

前後三百餘名으로方今嚴重取調中

檢索隊解散·解雪까시 一段落

金剛靈峰蠶食黨全滅?

太公望의長期戰

躍進의遞信事業

航空獎勵·放送網擴充·通信擴充

大藏省과의豫算案折衝도完了

◇經常部

◇臨時部

이만하면竊盜天才

服役中사귄同志끼리밤낮列車中心으로

神出鬼沒타가被逮

簡易保險額

三億餘萬圓突破

어린이보다

人夫慘死

國境警察官慰問

十六日부터出發

經濟警察制度

運用이良好

送局된것이僅六件

勤勞報國運動을制度化

五百萬人을總動員해

共同、勤勞生活을訓練

各道엔指導官도配置

學校、各團體等에

隊數七萬二百

生産力擴充의一石二鳥策

學務當局談

銃後施設大擴充

失業扶助·療養院設置·育英等

新規經費卅三萬圓計上

◇軍事扶助

蹊琴界의獨步

池龍九氏別世

휴지통

스키一消息

千五百、五千米에

金河吉君二着

中等氷上大會서

現職鐵道局員滑跡

醫師試驗問題解答集

元眞城醫學講習所

高木貴金屬店

리베-루

우수한치림약

우리옷감 태극성광목

百日咳에 ステコ

工業案內

大田藥令市

東亞案內

社員急募

カメラ

貸家

本社廣告部 直通電話光一

ビクター 蓄音器

コロムビア 蓄音器

各種在庫豊富

京城鍾路 山口樂器店鍾路支店

동정

最新發明

朝鮮衣服

サワイ商會

增訂詳解 二十句節 春岡訣

總販賣所 明文堂

謹賀新年

金泉

李白頭先生三絕會 總務 李□□ 事務員一同

寧邊

寧邊少林面龍山洞
各種織造
金抱機業所
主 明駿植

寧邊郡□山面□□□
芝山醫院
院長 車翊衡

寧邊郡 寧邊郡鄕校財產

平北寧邊 仁濟醫院 院長 □□一

寧邊產業組合

寧邊崇德學校

龍浦洞新明學院 殖產契作業場

寧邊邑內 李希石

李麟奎

金贊國

面長 李□□

金龜鉉

田俊弼

車德浩

李明國

李定濟

面長 中泰欽

梁寶明

韓用明

全永道

韓昇模

全履舞

金麗俊

申□韻

獨山面事務所 面長 車齊均 職員一同

車弘均

寧邊郡少林面 鍾山織造工場 主 明□大

明濟英

金得煥

明寬植

香林醫院 院長 金□□

無心

無名氏

蔡希天

明鳳植

回春醫院 院長 林□玉

寧邊郡八院面
改良明紬生産 老紡紬 溫珠紬 紡績糸 敷紫春紗
新興織物作業所
主 車丙官

寧邊郡八院面 司法書士 明庭植

寧邊郡八院面 龍山醫院 院長 □□□

車俊福

吳炯暾

金泰鉄

金龍燁

天安

天安郡廣德面大興里 孫昌伯

天安郡廳職員一同

天安邑事務所職員一同

天安郡□□面 李復圭

東一銀行天安支店

京城府大安□本町 安田商會 尹□均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 朝鮮出張所 職員一同

天安郡豊歲面 職員一同

南鮮合同電氣株式會社 天安支店

京城府大安□本町 信昌商會

天安郡□□面 朝鮮中央鑛業株式會社

天安郡□□市 朴性淳

朝鮮京南鐵道株式會社 本社 天安 電話(天安)六五、一八、二〇 自動車營業所 神井湖 二溫陽溫泉 電話(溫陽)二六、一七 一八、一九

天安郡 笠場面事務所一同

天安郡聖居面事務所職員一同

天安郡修身面長 李東珪

葛田面事務所 職員一同

金皓性

天安郡廣德面長 尹泰璇

並川醫院

閔斗鉉

金基哲

尹炳夏

朴東煥

孟昇淳

池炳元

愼炳周

朴晋陽

金學述

李元□

慶鍾夏

明月館

許□

兄弟商店 主 李根鎔

李友榮

崔敬五

林明奎

李長壽

李昌魯

尹昌鉉

尹景燮

天安醫院 院長 李在□

延聖熙

鎭海

東洋製絲株式會社 鎭海工場

鎭海金曜會

鎭海酒造株式會社

鎭海 邑長 牛島熊記 副邑長 金時煥

山崎重雄

李成烈

李敬玉 姜靈河

慶和洋行

丸山自轉車商會 主 金太奉

周時奉

崔濟弘

姜信喆

鄭相述

鎭海漁業組合

松本和

李周完

濟生堂藥房

東光理髮館

富潤屋商店

鎭海機業所

金鎭謨

朱國寧

又濟醫院 院長 朴□□

田德祥

鄭龍甲

東京堂洋服店

椽島酒造場

朴時暄 裵健守

熊東漁業組合

梁泰煥 職員一同

南面產業組合

昌原金融組合南面支所

上南酒造場

金鍾琨

孫楨宅

培英義塾

私立大項學院

加德商店

龍岡溫泉

金秉琓

金奎震

李淳翼

李哲

平壤館 主 金永□

東亞商會 主 金□□

靜養館

平壤旅館

江西自動車溫井營業所

高泰瑞商店

丸一運送店 主 金正□

金應善

金泰薰

崔璣善

金允善

溫養館

明月館

裵鏞洛

安洛完

李豊鉉

玉成東

裵致熙

信□

德川

文興洋服店

德川互有會

德川醫院

平安南道德川邑內 順昌商會

會仙館

最勝亭

永新堂藥房

樂天堂藥房

庫底

通川郡文廟直員 金炳裕

通川郡教育會

庫底邑會議員 李張李 明正學 求遠淳

東鮮釀酒所

東鮮油肥工場

成江木材商會 李貞求

陳陳秀學 台正源秀校

東海鐵工所 主 金龍仁

庫底漁業組合

庫底鰮油肥製造業者一同

鶴一面職員一同

歙谷面職員一同

田夏富商店

叢石印刷所 主 李德星

崔中祿

金斗萬

安已正

□正夏

姜德信

廣信時計店 主 李□□

庫底酒造場

金道賢商店

李鍾文

蔚山

盧在達

申玉男

月城酒店 主 李學先

西生火船組合

林相晋

荷主運輸組

金內哲商店

勸農園

金吉鳳

牛島醫院

李熙一

池達洙

海月館

朴萬石

南相萬

柳鎭鎔

李禎億

金壽鉉

松豊洋服店

成元永

李良宰

成興屋

通川親睦會

陳台憲

張相郁商店

東海館

朴學根

朴福萬

丸德館

李廷杰

蔚山製材工場

李根祚

城南旅館

大邱旅館

林錄營業所

今浦恒太郎

金萬述

朝鮮商業銀行支店

蔚山產業組合 靑良產業組合

具仁喆

蔚山商事株式會社

宋元壽百貨店

金鍾根

申永柱

鄭允鎔

朴□鎭

金泰弘 金□浩

金澤七

高永琦

朴壎鎭

沈贊求

黃相宗

金又守商店

山中旅館

萬成旅館

林憲平

李根守

朴宗默

野口恒三

蔚山稅務署

蔚山酒造組合

蔚山金曜會

蔚山醫友會

田中秀雄

卞東允

金基錫

大林金次郎

方魚津漁業組合

白斗先

方魚津鐵工株式會社

尹寧守

朴寬珠

棉作改良模範組合

車仲柱

朴盛根

溫山漁業組合 亭子漁業組合

吳文致

李永春

石川茂一

東海醫院

西井里

李將奐

元哲義

李益來

元道植

金□□商店

文學建設에寄할나의新提唱

朝鮮文學에주어진새길

─世界文學의 系列에로─

(完) 俞 鎭 午

新春文藝選評

◇…一 記 者

新春當選小說

萬 歲 丸

(6)

作・金 夢

畵・盧 壽 鉉

傳統과創造

再認識되어야할花郞制度

花郞制度가內包하는現代的意義

(一) 劉 昌 宣

(花) (郞) (이) (人) (國) (新) (樂) (伽) (獨)

賀新春

咸興支局經營十週年記念

咸興 韓 台 桓

咸興府本町 咸興農信株式會社 電話八三五番

黃 恒 植

咸興府本町三丁目 咸興醬油株式會社

咸興府本町二丁目二十三番地 梁 幹 永 電話三六三番

一色 吳 斗 煥

咸興府有樂町九 成泰號 電話四八番

咸興府昭和町 興文堂

楊 鎭 明

東川面會山里 楊 鎭 學

兄弟工作所

朴 英 復

成興商業 倉庫株式會社

銀 座 屋

永生中學校

長城

長城郡內學校職員一同

長城金融組合 組合長 金 極 / 理事 吉 武 宗 政洙

組合長 柳 德 烈 / 理事 金 重 甲

組合長 金 曝 祐 / 理事 申 衡 植

組合長 金 榮 洙 / 理事 朴 宣 奎

長城郡北二面 和信連鎖店 主 李 炳 琨

朴 璜 柱

長城郡西三面 潘 智 煥

金 鍾 侖

長城郡西三面 西三釀造場 主 鄭 台 鳳

揷橋

白 哲 鉉

和成農會 主 姜 海 鵬

古邑面大川 昌盛商店主 李 昌 雨

德山農場

姜 鐸 根

徐 英 男 / 徐 元 春

三 和 農 場

成 百 震

明 月 館

李 章 煥

池 正 回

德山面事務所

任 承 宰

李 泓 世

張 昌 吉

玄 麟 在

崔 昌 業

玄 鍾 完 / 玄 鍾 震

陳 英 俊

鄭 鎭 億

金 富 昌 / 鄭 東 淳

鄭 載 悳

韓 永 淳

張 霖 煥

申 泰 然 / 申 泰 仁

金 永 旭

朴 宗 植

李 龍 鉉

大 東 商 店

講習所役員一同

靑陽

崔 山 天

職員一同

劉 鳳 植

安 鎭 老

趙 源 鍜

朴 曉

李 智 學

白米配給所

徐 元 普

李 秉 琯

靑陽釀造場

鄭 庭 煥

金 相 紳

金 昌 憙

朴 泰 富

南 相 玉

沈 鍾 銀

龍鶴釀造場

金 瓚 衡

平和堂製菓所 金 相 宜

金成醫院

靑柳旅館 梁 長 喜

李 相 珏

沈 鍾 甲

靑陽商會

韓 明 哲

權 泰 翊

金 健 植

田 在 禧

靑陽郡敎育會

金城洋服店 主 金 東 臣

玉果

玉果面事務所職員一同

大昌商會 主 曹 圭 大

全 昌 泳

火面事務所 職員一同

許 駿 煥

玉果酒造場

三岐酒造場

玉果穀物商組合

韓 哲 晋

韓 瞻 洙

金 石 根

龜城

岡 田 商 店

杉 谷 市 郞

李 洪 信

高 在 昭

具 大 書

龜城郡農會

三成德大組合 組合長 朴 容 鎬

龜城警察署 共友會

日成精米所

龜城稅務署 稅友會

龜城産業組合

龜龍泉釀酒社 主 朴 昌 日

龜城司法書士組合

龜城公立學校 職員一同

龜城金融組合

朴 健 會

長淵

學校敎職員一同

長淵郡農會 職員一同

長淵郵便所

大成製藥商會

春元精米所

尹斗煥商店

根厚材木商會

圖們

豊國洋行

胚芽米食과雜穀食 (下)
주식물의 영양화
잡곡밥은 배아미밥과 같읍니다
醫學 金浩植

잡곡식이 영양상으로 보아 이처에 어그러지지 안코도 리어 여러가지 점으로 보아서 더욱 장려하여야될것입니다 [illegible] 그러나 할것입니다 [illegible] 실지에 잇어서 더욱 유의하여야할것이 몃가지 잇습니다.

첫째 순현식 주 하기지 로반법을 지으면 [illegible]

비교적 안에 부니치는 [illegible] 내 거칠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더욱 [illegible] 잡곡밥을 [illegible] 적게 섞어서 [illegible]

팥밥은 팥은 대개 [illegible] 그전 예로 비타민가가 석시 [illegible]

둘째 [illegible]

셋째 [illegible] 어린이들은 [illegible] 수 있는 [illegible]

어 가지고 [illegible] 밥을 냉겨버리는데 그때에 [illegible] 는 영양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illegible] 그렇다나 잇슴을 [illegible] 나다. 그러니까 [illegible] 붓고 넘기지 안코 밥이 되도 [illegible]

[illegible] 연구하여야겟습니다. 이제 [illegible] 먹으면 [illegible]

학교가정의 중계언 (學校家庭의 中繼言)

학부의 교학

培材高等 金用經

[illegible] 학교에서 [illegible] 시험이 한 [illegible] 가정과 학교와의 [illegible] 하고 실제는 [illegible] 진정한 교육이란 [illegible] 되어서 [illegible]

[illegible] 가정에 보내는 말씀이라고는 「사회한 사람은 [illegible] 나온다」는것을 [illegible] 필요로 [illegible]

사람은 [illegible] 어린때 수위한 [illegible] 어린이의 [illegible] 학교 당국에 책임 [illegible]

지에서는 주식물 개선이 아주 긴급한 문제이요 또한 [illegible] 한 해결방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종래의 [illegible] 잡곡식을 더욱장려 [illegible]

紙上病院
이가 다시 날가

[문] 저는지금 구세소년이외다 [illegible]

[답] [illegible]

朝鮮女子服의 變遷史 (下)
李 富 華

李富華氏

첫째 안우리 치마를 짧게 입는다 [illegible] 조선의 부인들의 [illegible]

셋째 [illegible]

마치 [illegible]

우경 [illegible]

상숭 [illegible]

의편 [illegible]

(李富華氏談)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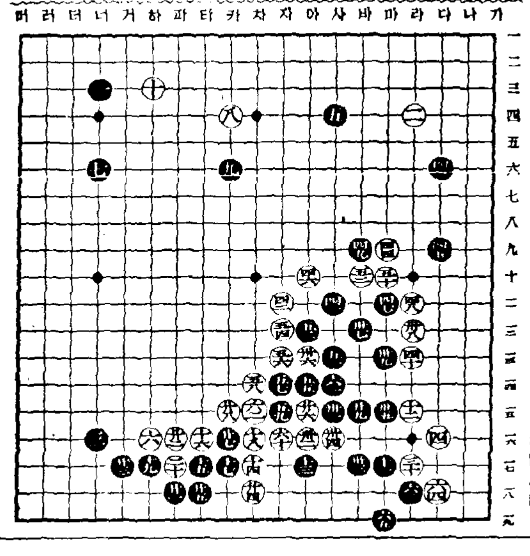
圍碁欄
潰圍策을捨하黑 內部圍生의苟且

[illegible]

(關寿全由十圍圍記)

本社主催 第二回全朝鮮選手權大會 리그戰譜 (4)

先相 白 閔仲植 / 黑 盧史楚



○四四마의九	●四五다의九
○四六아의十	●四七마의十一
○四八라의十一	●四九바의九
○五○마의十	●五一사의十三
○五二바의十二	●五三아의十二
○五四자의十三	●五五아의十四
○五六자의十三	●五七자의十四
○五八차의十五	●五九자의十五
○六○자의十六	●六一사의十四
○六二차의十五	●六三라의十六
○六四다의十八	●六五마의十九

放送프로

一月十二日(木) 第二放送
▲六、○○ 音樂 [illegible]
▲七、三○ 講演 [illegible]

一月十三日(金) 第一放送 [illegible]

第二放送 [illegible]

一月十四日(土) 第二放送 [illegible]

第一放送 [illegible]

第三回 婦人歌闘、擲柶大會

日時 一月 十四日(土) 十五日(日) 午後六時 (十四日은 歌闘 十五日은 擲柶)

會員 歌闘五十名、擲柶二滿員

會費 五十錢 十三日午後四時까지本社庶務部로 申込할것 (定員에 오지 안으면 不參으로 알겟읍니다)

場所 歌闘는 本社應接室 擲柶는 本社大講堂

規定 歌闘는 漢圖本을 使用함

賞品 一、二、三等外에 一般賞品도 잇음

主催 東亞日報社學藝部

當選童話 참새와 순희 (6)
金 起 八

「엄마 알지두 못하면서 빨리빨리 안주면 납몰라. 순히 착하지 안허.」

「조곰만! 응 내 이만큼 갓다주께!」 하고 어머니는 한가스러이 누닭을 벌 [illegible]

면 젓엇구 밥엇구 …」

「아니야, 나 아니야!」

어린이는 우는것이 제일인가 봅니다. 어머니는 아무 쓰면서 마우는 순희의 얼굴 을 보구야 바느질감을 노코 광으로 갑니다. 순희도 우름을 그치고 어머니를 바삐 따라가다가 뜰에서 눈에 미끄러저 자빠젓습니다.

러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견디잔 속이지요. 그리고 또 한번 순희의 얼굴을 디려다 봅니다.

「쌀은 뭘하지?」

「글세 쓸데가 잇어 빨리 빨리 안주면 난 몰라!」

좀체로 안주는 어머니가 나미러워 순희는 화를 버럭내고 금시라도 울듯합니다.

울상이 되어갓이고 글성, 글성 눈에는 눈물을 매닷고

「엄마 빨리 안주면 배고파 죽어! 죽으면 난 몰라!」

하고 우름이 터젓습니다. 목노코우는 순희의 우름소리는 어머니 가슴을 울려줍니다.

「애, 죽기는 뭐가 죽는다구 아단이야? 울잔는다구 안그랫어? 순히가 배고프

자빠젓어도 순희는 울지안습니다. 순희는 지금 또 어른이 됏으니까요. 울라고도 하지 안습니다.

종이에 싸주는 쌀을 받어들고 부엌으로 쫓아옵니다. 참새가 보이지 안습니다. 순희는 한바탕 울까하다가 참고 찾어봅니다. 배가 고파서 죽은게다 하고 순희는 생각하고 쌀을 빨리 안준 어머니가 나브리워 졸니다고 방에 들어갑니다 지움에 참새가 푸드등 기운없는 날개를 치면서 순희억개에 와 앉엇습니다.

婦人病・不姙症에
命之母
(효약)
[illegible]
各地藥房에서販賣합니다
笹岡省三藥房

藥 價	
命之母	오 거 나 물
十二日分 一	八日分 一
二十日分 二	十七日分 二
三十日分 三	二十四日分 三
七十日分 十	五十日分 五

笹岡省三藥房

처음으로 아들을 나섯고
조와하시는 남편의 감사장

[illegible]

이 신문을 주문법

[illegible]

부인병을 그대로두면 애기를 못나케되는데 왜 치료를 게을리하십니가

부인병은 [illegible] 자궁내막염, 월경불순, [illegible]

朝鮮演劇의 나아갈 方向

레퍼委員會組織과 言語修鍊이 緊要

劇作家와 脚色家의 參加도 要望

劇團人의 重要한 提唱

興行劇團의 態度

洪海星 그러나 신극의 지연회에는 위험성(危險性)도 잇습니다 신파(新派)가 될 위험성이요. 이점은 극평가가 한정적으로써야겟지요. 극평가 여기를 해오니말이지 극평가와 언론계는 공회당이나 부민관에서 二、三일 계속하는 신극에 대한 평은 실리나 연일연극을 하고잇는 동양극장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극단에는 신극보다 반동적이라서 수있는데……하고 묵살(默殺)해버립니다. 이때도는거나 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극단체도 지방순회를 만히해서 다면 사인(自認)하고 잇지안흘가요?

李貫 이제 극평가의 이야기는 관중의 수준을 놉혀야겟고… 서또는 흥행극단의 반성(反省)을 위해서 흥행극평을 만히 쓰지안흣습니까. 그러치만 흥행극단에서는 어무 반성도없이 그대로 나가니까 쓰는 사람이 어데 하라이야가 잇어야지요. 朴鄕民씨 「동경가이오」라고 성원 그러다고 신극속평(?)을 써도 되고해서도 리여 그러니까 흥행상시키지도 못한 이 흥행극단사람에게 가정만 시켜버리니까.

朴鄕民 흥행극단에는 작년과 금년이 없지안하요. 「가다」에 맘에 하셔야 이어서 사세되니까.

洪海星 그러치만 극평가가 다른 비평가보다 한층 더 괴로울 리 없습니다.

朴鄕民 어바인 연기가 좀 늘었을가요. 자체가 양심을 가지고 향상 분화(文化)를 위해야 할텐데 그게 엇습니다.

상업극단에서는 극평가의 글을 허심(虛心坦懷)하게 안듯는것갓본데요.

朴鄕民 어느정도까지는 관중의 문화수준이 문제겟습니다 사변이후 동경(東京)에서는 관중은 고도화(高度化)한 연극에로 만히 어울리엇습니다. 그러나 조선에는 흥행극단가 어서맛지안습니다. 소위 신극운동이라해서 바쁜입니다. 신극 흥행이 흥행(?)를 잘해주고 정합니다 연극이 동일체화(同一體化)하려는 중요한 모멘트입니다.

柳致眞 흥행성잇게 말슴한 흥행극을 술이씨 버리운느냐? 는데한한데 동양극장(東洋劇場)속에서도 쓰스레를 습고져서 조흔 연극을 할수잇는 환경하고 극평가도 이에 협력해서 극단들을 불각하게 되면 조흔 것입니다. 흥행극단도 극단화의 一부분이니까요.

安基錫 일본내지 전진좌(前進座)에서는 신극각본(脚本)을 흥리 연출에도 신극인들 초빙하고하는데 여기서도 그러케햇으면 조치안습니까.

記者 영화(映畫)는 조선에서의 은것지고 순해본것이 업다는데 그것은 사지방으로 나가니까 원만한 작품이라도 수시거 맛는다는것입니다. 연극도 지방인을 엿으면 재미이 업나어서인안 될까요.

安基錫 시방 모연을 파헤야시고 관중의 수준이 낫다고만 할는 조흔 연극이라면 관중은 만히 놀더이니까 수시보맛고 시방의 관중의 분회수준도 놉아시고하면 조치요.

버렷지오. 그러고 지방순업은 지장(支障)이 만어서 하기 힘들지안흘가요.

柳致眞 신극은 무대장치(舞台裝置)같은데도 힘을 들이는데 대규장의 무대장치는 지방에 가져가도 설비하엿시안고 또신극은 스토리나 배우의 매력이 없으니까 이단 「스타·시스템」이 아니니까 이우가지로보아서 지방순회는 힘듭니다.

安基錫 「중앙무대」에서는 두달에 한번씩 중앙공연을 하고 그나머에는 지방으로 순회합니다 다 이처 조선에서는 신극을부 무대상하도 서흘수잇도록하니 민까같은데서 공연할 관계에못이 되지고 생각합니다. 습더 술은 극장이 필요하시요. 「레퍼토리」문제는 중앙이라고도 하고 지방이라고 비약하여서는 아닙니다.

레퍼토리의 貧困과 打開策

記者 시방의 극계에는 레퍼토리가 빈약하시안니까. 신극에 대해서 빈약한것도 레퍼토리의 빈약을 말하는것이아닐가요.

柳致眞 빈약한것 사실인데 세인보다 시기 개작(改作)가 서로 작가 作家중에 히곡(戲曲)을 쓰는 사람도 소설(小說)을 쓰는이 만흘보면 희곡(戲曲)로 쓰는사람으로 큰일입니다.

李無影 하면 하고 희곡이 만히 나오나가 어쨋던지 마 가거

小說脚色이 必要 와 文壇파의 交涉

尹默 「시가나와야한다고만

朴鄕民 그런 상연을 사생할수잇다면 창작도 할수잇겟지요.

尹默 창작과 각색은 다르니까 그러치도 안지오.

柳致眞 각색도 할줄모른다고 할수잇지안흘가? 일종 이쓰다는 뜻이 못는다.)

洪海星 신문에 발표되는 소설을 각색하면 더 효과적일겟요.

柳致眞 문단(文壇)의작가사선말 만히 씀엇니다. 그런데 현재는 히곡작가가 업다느니보다 히곡을써도 안보게 에서 어결되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라도 극계(劇界)에서 히곡발표의 잡지를 가엇으면 조케습니다.

金旭 그런데 작가는 극장에 대해서 너무 무지(無智)합니다. 무대를 모르고 쓰기쉽우니까 어련석으로 보아서도 연극인은음

柳致眞 一년에 一년한 히곡이 적엇습니다. 어것은 잡지사에서 소설만 만히 실고 히곡은 안실르데 잡지도개변(?)지 같은 문화적의의를 가진 편집방침에서 것입니다.

李貫 쓰고잇는 형편 업니다.

記者 언론계 공격은 그만하시고 (일동 웃어버린다.)

金承允 아까 흥행극단 이야기가 낫으니말이지만 흥행극단은 진보하려는 의도(意圖)가 없지 안흔가 싶나. 극평가의 평만바라지말고 자신해서 숨더 신보하기에 힘써야할것입니다.

柳致眞 동양극장에서 부민관에까지 진출하는것은 참 반갑다다. (일동 웃는다.)

洪海星 그러케해서 본보아가지고 조코 극 연극을 하려고 그러는데다.

尹默 그런데 다수를 포옹해서 나서 노는 희곡쓰는 기술이야마를 위해서 소설가생은 좃습니다.

記者 작가 다수를 포옹해서 나 「레퍼토리」위원을 정해서 나가면 조흘데 아직 이것은 실시한 극단은 없는듯합니다.

安基錫 「중앙무대」에선 안되엇지만 동양극장에선 하지만…

세우기위해서 초청하니 그런고로 못된데도를 고처줍시사고 최복경씨한테 특히 전해주십시오. (최복경씨는 동양극장 경영자임)

金承允 동양극장에서 부민관에까지 진출하는것은 참 반갑다다. (일동 웃는다.)

柳致眞 레퍼토리 문제는 조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번역도 만코 각색자도 만코 창작자도 만흔 일본내지에서도 레퍼토리는 늘 빈궁하지안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인제부터는 기록(記錄)만 남기고 넘어가는 지금보다 연극할수를 발고 재상연(再上演)을 만히하면 좀나 아질것갓습니다. 동양같은데서는 여러수일 계속상연도 하니까 기술도 늘고 레퍼토리 빈곤도 구제되고 배우도 적게늘고…여간 조치안흘데요.

安基錫 중앙무대에서는 그러케 해한모로 지방순회를하고는 예 있습니다. (중앙무대선전이 자꾸 되부러되니까 일동 폭소한다.)

流動觀客吸收策과 劇場問題

李無影 신극에서도 유동하는 관객을 잡는것이 필요합니다.

柳致眞 그점은 극평가의 힘이 큽니다. 대중에게 맛을 보여주는 사업이 극평가인데 그러므로 소개七부, 평三부가 어성입니다. 그러니까 극평가는 극단과 공동선으로 나가야합니다.

記者 유동승객을 끌어드릴려면 단시일공연으로는 힘들지요. 극장이 잇어서 상설공연(常設公演)에 계속되어야 한 극단으로 불가하다면 신극단체 몇개가 번갈어 가면서 공연을 해야 어제던지 그극장에 가면 신극을 볼수잇다하게되면 유동충도 불잡을수 잇겟지요.

金旭 번역극에대해서는어떠케를 생각하십니까.

尹默 지엽가본다면외국은 여러가지로 보아 배울점이 만흐니까 외국극三, 창작七로 「레퍼토리」를 짜면 조흘것이니다.

安基錫 외국극은 테크닉에 잇어서 배울것이 만습니다.

尹默 아니지오, 내용이 一차적이지만

緊要한 言語修鍊

李海浪 번역극을 만히 하면 연기에도 도움이 나오게됩니다.

記者 예지음 중앙무대의 외국연극의 번역극을 보앗는데 어째 너무 번역체(體)에서 조선말이 되지못한데가 귀에 자주 서슬러 상층에 퍽 적엇습니다.

朴東根 번역에 성의(誠意)가 적습니다. 일반으로

安基錫 하나라 한민족의 어어(言語)는 그 민족의 대사(臺詞)로 대표되는데 우리 연기자들은 언어(言語)를 너무 등한시(等閑視)합니다.

李無影 失名氏 모두 말공부를 만히 해야지오.

東京學生劇과 朝鮮파이 關聯

記者 여지리에는 동경학생예술좌(東京學生藝術座)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곳에서 나온 분도 계시니까 그곳연극과 이곳연극과의 관련에 대해서 말슴해주셧으면 고맙겟습니다. 또 상호비판(相互批判)도하시고

尹默 동경에서 나왓다고 하는 사람들의 연극가를 보여야 동경에서 엿든데 조선에 비하여 동경에서는 조선의 학생이 만히 참가하여 배우고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운 기술을 배운 그곳학생을 여기서도 우대해야할것이라고 봅니다.

朴東根 동경에선 문화가 흐려나온다는 말에는 동감이나 동경에 조선연극인이 만흔은 동경연극이 활발하기 때문이라기보다 그전의 조선연극 어 발전이타고 봅니다. 내가 본바를 말하면 축지소극장(築地小劇場)이 활발하여쓸때는 문과(文科)에도 연극을 연구하는분이 생긴것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과(商科)、공과(工科)사람들도 연극운동에 참가하는분이 만습니다. 이것은 조선연극운동이 상경에잇는 인테리층 자극하는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고 동경학생들이 연극운동에 연극이것은 조심하나 조선연극운 무르는듯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와서 일을하다가 조금만 큰나와는일이 잇으면 큰 엿을을 내고 성명하고 큰 화해보도까고합니다. 좀더 조선연극을 배우고 시작햇으면 조켓습니다. 또하나 유감된것은 三、四년전의 三、二운동보아도 조선말이 서투릅니다. 아뭇튼 의 바이올라니스트갈이 자기조작(自己創作)의 언어도 을 합니다. 머리는 놉고 입은고 일은 안되니까 보기가 딱합니다. 총경인들에게 부탁하는것은 조선말공부고 조선의 말을배우고 시작해주엇으면 합니다.

尹默 (朴東根氏를 향하여) 어떳습니까 학생예술좌의 청평은?

朴東根 유치진씨 말슴들이 우리는 조선어말에 대해서 근관심을 가지기에 노력하고잇습니다 아마 조선에 먼저 나오신 선배(先輩)중에 그런 결점이 잇엇기때문에 하시는말슴같은데 이것은 혹은 동경에서 배워가지고 고도(高度)의것을 배워가지고 왓도 여기의 기관(機關)이 그사람들의 맘에맛지안는 탓도잇는듯합니다. 동경학생들을 만히 격려해주시는 동시에 동경사람의 청영들 잉어수어서 일화수잇는분위기를 맨들어주셧으면 고맙겟습니다.

李無影 조선에대한 지식을 먼저 가지라지만 동경학생이란 중앙학교를 졸업한분이라 사회인

◇…때十一월廿一일저녁
◇…곳…본사 응접실
◇출석하신분들(무순)

劇研座 洪海星
劇研座 柳致眞
浪漫座 朴鄕民
中央舞臺 安基錫
劇研座 李貫
浪漫座 李海浪
中央舞臺 金旭
學生藝術座 金承允
學生藝術座 朴東根
劇研座 尹默
本社側 李無影·趙豊衍

朝鮮舞踊의 特異性

趙澤元

朝鮮舞踊은 방금 日本內外 世界에 알리고 잇는 過程에 잇는데, 어는 勿論우리 舞踊家의 高踏的인 努力을 後援하여주신 諸賢의 여러분의 德澤이기도 하나 한편 舞踊家自身의 奮鬪의 後援者이 여기는 一部?라 會와 싸우며 努力을 거듭하야 朝鮮舞踊의 特異性을 알으로써 世界舞踊에 알리기에 예쓴 舞踊家自身의 謙遜한 努力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말하는것을 수저넘다 거지럽하신다면 달게 받겟습니다.)

崔承喜女史가 渡米하야 興行으로는 問題도 잇엇다하나 藝術的價値에 對하여서는 堂堂한 朝鮮舞踊家의 存在를 뵈이 紹介했으며 朴永仁氏는 獨逸로 佛蘭西에서 朝鮮舞踊을 紹介하야 막다르기에 어는 西洋舞踊界에 큰 衝動을 주엇은 何如間 이엿다.

그리고 筆者도 佛蘭西에서 저로 新聞을 通하여 報道되여다 舞踊을 紹介하여 相當한 賞을 주엇습니다.

어같이 朝鮮舞踊이 높이 評價된것은 어느程度까지는 勿論 우리들의 熱誠的인 努力에 따른 情熱에도 의하엿는지모르나 筆者가 믿기에는 朝鮮舞踊만 形式美에만 한이안은 歐米人에게 잇어서 한層 異國的이었다는 것입니다.

世界舞踊에 잇어서의 朝鮮舞踊의 特異性이 어떠한것인지를 말하기前에 먼저 東洋舞踊을 말하야 보겟습니다.

東洋舞踊은 大概 두가지로 나눌수잇습니다. 하나는 南洋系統의 舞踊으로 日本內地舞踊의 大部分은 이에 屬하는데 이系統의 것은 맛족에 어떤 「어데아」를 가진 것이 表現하는 動作이 自然的입니다.

어데 다른 한系統은 支那·西藏(?)高麗를 거쳐 朝鮮의 舞踊에는 南(?)하여서 다 朝鮮의 舞踊에는 들어가지 못하다고봅니다.

것이라기보다 外形의 肉體의 여러가지 變化를 보여주는것이 特徵이라 하겟습니다. 그러므로 어떤것이 全部가 肉體의 「不自然한」技術에만그처 一種의 「아크로바틱」한것에 떠러지고마어 民俗的으로나 또는 異國情緖를 느끼게하는데는 재미잇을 것이나 藝術的意味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여겻은 西洋舞踊에도 어느程度로 適用되는데 西洋사람의 「발레―」는 傍者에게 興의 「발레―」는 傍者에게 興味를 주나 南洋士人의 舞踊은 어떤 西洋人의 맘에 어니러고 면합니다. 즉 朝鮮舞踊의 系列에 屬하는 朝鮮舞踊의 古典舞踊은 ... 흥행에도 南洋系統의 舞踊을 對하여을 때의 그룹의 態度와 朝鮮舞踊을 對하여을때의 그것과는 判異합을 보이드 朝鮮舞踊이 異國情緖에만 依하여 歡迎받지안흠을 알수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가지 問題가 잇습니다. 그것은 어떠케 내려온 그대로의 形式으로는 안된다는것입니다. 즉 西洋의 藝術舞踊은 傳統로 發展하여 本來의 기존것이 어데에보다도 形式美에로 흘러버렸음에 反하여 朝鮮의 舞踊은 形式美에 흐르지 안코 (?)하야 朝鮮舞踊에 새로운 呼吸을 너흐려는 것입니다.) 朝鮮舞踊에 주어진 그것은 來世로 주어진다면 그것은 아무런 前進이 업는 것이라 退化밧게 업니다.

여기서 새로운 朝鮮의 舞踊家의 나아갈길이 잇습니다.

附記 한가지 注意할것은 朝鮮古典舞踊과 民俗舞踊은 嚴格히 區別되어야 할것으로 筆者가 말하는 것은 古典舞踊을 意味합니다.

(사진은 趙澤元氏)

西洋의 舞踊世界는 이미 새로운 素材―이것은 새로운 세운... 世界舞踊에 잇어서 朝鮮舞踊의 役割을 充分히 할수잇고 또 主張할수잇고 (?)

海外音樂레포

★토스카니니 米國歸化說

★쇼―翁의 音樂批評

◆…「나치스」의 독일(獨逸)을 유태인(猶太人)축방을 실행하는데 이태리의 「파시스트」에 「무쏘리니」의 미국이 (米國歸化說)이 전해지고 잇는데 최근의정보에 의하면 이문제의 현상(現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태리정부는 국외(國外)에 잇어서의 「토스카니니」의 정치적 기분(政治的)에 대하여 재미없어하여 그 활동을 여행(旅行)등의 자유에 관한 제한 (?)를 하고있다 한다.

◆…서울이었(?) 출하여 이태리안에서는 「토스카니니」는 음악활동에 아무 입장을 받지안고 있으나 최근 「토스카니니」·여행에서는 유태인으로부터 반(反)「파시스트」라하여 바를리었고 또반정(?) (反獨)적 어사를 발표하고 또니 무정치적 의식(意識)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는등의 행동이 이태리에서 있어서 반감을 사서 부터 비판받고잇다.

◆…「쇼」의 날혹 「버―나―드·쇼―」가 최근 음악비평(音樂批評)의 붓을 들고 였다. 그는 일직 一八八八년부터 一八九〇년에 이르기까지의 무명시대에 「스타―」지(紙)상에 「코르노·디·버세트」라는 「펜·네임」으로 음악비평을 계속하여 그 신선한 필치(筆致)보인 기를 얻어엇다. 당시 「쇼」가 크게 감명(感銘)하여 주어운 작곡가(作曲家)로는 그때는 평가(評價)가 결정되지 안햇든 「지 쎄르디」가 엿엇다는데 「지쎄르디」·「ᄭᅡ」 그후 유명해지지 전것을 보아 「쇼」의 안식(眼識)을 엿볼수잇다.

그러므로 四十八년후인 이번 그가 다시 음악비평에 그의 독특한 「쎄스」를 보히는 비평에는 만흔기대가 가져진다고. (사진은 쇼―氏)

娛樂性보다 나치즘

尹默

獨逸

現下 獨逸映畫는 國策映畫와 外國의 映畫政策 映畫를 嚴然히 區別하는 同時에 어디것은 國家統制의 指導映畫政策으로서 的危機를 打開하는 映畫會社의 保護를 所有하는 映畫界는데서 것으로 映畫會社와의 關係하고 잇어난 映畫統制와 가시고 映畫製作에 從的認識上 必要한 資格을 가진 者 製作에 依殷하리고보고 製作者에게 一定한 條件에 補助를 交付하기도 햇다. 또 映畫는 一層 映畫國策으로 認定하야 優家의 指導精神에 依存하고 作家의 良心을 映畫의 一般的 水準을 設定하고 保護政策에 比하여 國家의 態度는 아주 機能的이다 日本의 서는 그 映畫의 教育的 文化的價値의 有無를 檢査하고 映畫國策의 精華를 附與하기도 하여 人의 活動은 거의 制限을 받고 時에는 嫌의 방울한 强制的 規制이 不可한 必要事로써 是認되고잇다.

一九三三年 나치스가 政權을 把握하자 그 映畫政策이 國家社會主義에 立脚하여 人民의 生活을 轉換한 것은 어지도 우리 記憶에서 사라지지안을것이다.

獨逸의 映畫政策의 根本精神을 說明하는 것은 現在의 獨逸의 映畫政策을 明確히 把握하는 捷徑이라고 본다.

獨逸에서는 一九一六年부터 數時 別法에 依하여 外國映畫의 輸入制限을 하여왓고 一九二五年부터는 一對一의 制限法을 實施하고 二八、三〇、三一、三二年에 그것을 더욱 强化하여 外國映畫에 對해서는 輸入을 制限함이 아니라 獨逸映畫의 輸出을 擴大하기 위하여 一切의 規制를 設定하여 그리하여 獨逸의 映畫를 經濟的으로 保護하는 同時에 全國的 映畫企業의 統制中心인 全國映畫院을 設立하게 되었다. 「우파오」·「도비스」·「다꼬」(獨逸映畫) 機能을 整理하여 解消하고 獨逸映畫藝術의 統一을 거처 全國文化院의 一部門으로써 映畫院이 있다.

獨逸映畫法에 依하면 獨逸映畫는 國民의 精神과 國家社會主義精神에 國民을 敎育하는 文化財로 認定되어 獨逸映畫의 가장 重要한 事業은 外來의 文化侵略으로부터 國民을 保護하고 獨逸精神을 發揚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國家의 映畫政策은 全國映畫院 三七年 三月에 制定한 全國映畫法에 依하여 全映畫人을 統制하고 그 映畫法을 一九三四年 二月 十六日에 公布하고 同二月에 公布된 監督 映畫法(例)에 依하여 世界의 映畫에 對한 獨逸映畫의 優越性을 主張하는 것이다.

또 獨逸映畫는 제한하고 그것을 規制하는 同時에 映畫藝術 全般에 걸처 全國映畫院을 중심으로 하는 統制가 實施되어 獨逸의 映畫는 모든 分野에서 國家의 意志에 從하게 되엇다. 一九三四年 二月 公布된 映畫法에 依하여 國家의 映畫檢閱이 實施되어 全國映畫院 總裁 밑에 映畫企業 全體가 統制되엇다.

그리하여 國民의 세계관을 統一하고 獨逸의 世界觀을 고무하는 映畫 國家的으로 全國民의 映畫 藝術을 一元的으로 指導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映畫의 國家統制에 對한 同院 本部에 依하여 全映畫人을 統制하는 것이며 이것으로써 獨逸의 映畫는 外來의 影響을 배제하고 民族的인 映畫로 發展하는 것이다.

米國의 映畫政策 (續)

柳致眞

그러나 어떤 作品이 特殊한 어떤 目的下에서 만들어진 作品이어야 한다. 一政府… 나오 民間企業者가 利益을 爲하여 觀客의 趣好에 應하려는 時局的인 意味에서 製作한다 不過하다. 어쨌던 民間의 自由로운 企業의 그것이 아니라할 수 없다. 여기에 또 美國의 米國다운 面影도 있는 것이다.

어찌하여 米國의 映畫政策은 觀點에서 보면 나의 映畫政策은 國家的인 見地에서 政府가 指導하고 統制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2)의 產業的見地에서 보면 米國의 映畫政策은 政府의 그것과는 다소 달리 政府의 助力이 있는 것이다.

…目的…

은 映畫의 海外市場의 擴張과 그 販路를 開拓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米國의 映畫工業은 全米國產業에서 그 地位를 占하고 있어서 米國의 映畫輸出은 全世界에 큰 成功을 거두고 있다. 그리하여 그 商務的 見地에서 이것을 指導하는 것이 五十餘國에 散在한 米國領事館이다.

…發展…

이것은 그 海外에 있는 領事館의 協力하에 各國의 映畫情勢를 蒐集하여 本國 商務省의 映畫部로 報告하게 되고 이것이 어떤 映畫會社의 海外營業에 크게 參考되는 것이다. 一面 商務省 映畫部에서는 各國의 映畫事情을 調査하여 情報를 提供하는 同時에 外國에 있어서 米國映畫의 輸入制限 等 米國映畫의 海外進出에 對한 障害를 除去하기 위하여 努力하고 있다.

…統制…

映畫製作者協會(映畫 製作者配給者協會)가 統制하는 自治的 統制이다. 이 協會 會長은 헤이스氏이며 米國映畫製作者 大部分이 여기에 加入하고 있다. 이 協會는 一九二二年에 組織된 것으로 映畫業의 自治的 統制와 映畫界의 內外의 諸問題를 處理하기 위하여 同業者의 協力機關으로 組織되었다. 米國映畫의 海外輸出은 商務省과 이 協會가 共同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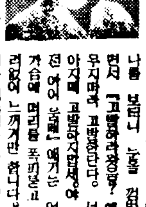
…檢閱…

米國에 있어서의 映畫檢閱은 連邦政府에서 하지 않고 各州의 檢閱과 헤이스 氏 協會의 自治的 檢閱 規定에 依하여 行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米國의 映畫檢閱이 政府의 것보다 民間의 自主的인 自治의 形式으로 行하여지고 있는 것이 特色이라 하겠다. (끗)

藝苑隨想

★間島의 자장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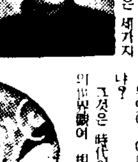
高麗映畫 全玉



旅行을 하여보던중 間島의 秋野만치 인상깊은곳은 없엇읍니다. 실지몽이 집을 처서 공막조공 줄다린치고 빼불거는 삭새떼같이 지저귀며 城門밖에 누어잇는 충아지의 공명어를 통목지어바는 구요. 그래도 처잔게 對해도 없어얻바만 몽이며 누운쟈, 그것이 아직 봄시 여름아무런 충아지인까닭에 아버자세 가엽게 보였습니다. 眞實이 비끼면 제법 거세인 바람이 불어오는데 고요한 물결이인답니다. 팔목만한 조어사의 남스러움어여 내어린 한때를 걸러주더냉이―이것이 바로 間島 흐름이구나. 웬일인지 눈물겨웟습니다. 소방주으로부터등그린단어 숫음때까지 정신없이 거닐고잇노라니 어디서 자장가가 들립니다. 고향 그리운 엄마마음을 나에게 자장가로 달래보는듯. 『고향아버지 귀항에서 자장가를 부르며 그이가 나에게 보고지면서 나를 그치게하엿습니다. 오늘의 만흔 가슴에 미리를 폭 파묻고 소리 없이 느끼기만 합니다. 보채는 間島의 애기에 전하지는 않은듯 間島의 자장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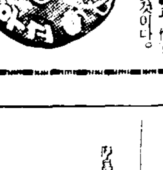
★眞實의 探求

學生藝術座 朱永涉



現代의 映畫藝術은 세가지 「장르」의 映畫가 있다. (一)文化映畫(二)劇映畫(三)一 實寫映畫 (一)은 事實의 眞實, (二)는 幻想의 眞實, (三)은 分類할수있다.

映畫의 眞實을 探求한다. 세가지 「장르」의 映畫가 모두 眞實의 探求가 目的이다. 現實의 眞實과 藝術의 眞實 그리는 곳에 新聞과 新派가 區別되는것이다. 오늘의 만흔 映畫는 文化에 잇어서도 그곳에 映畫藝術과 活動寫眞이 區別되는 것이다. 作映畫는 映畫의 眞實을 그리고잇다. 그것은 觀衆에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어느 時代에나 映畫界는 外國에 比하여 朝鮮映畫界는 技術, 資本의 貧弱에 對하여 作家가 眞實을 探求하는 精神이 眞實의 그러한 作品을 가져야한다. 그 世界에 나가야 한다. 수 없 가 지 고 그리기때문에 어째나 眞實이 무엇이 어떤것이 眞實이 될것인가? 그것은 時代의 精神과 作家의 世界觀에 規定되는것이다.



만이 아니라 동경은 일반적으로 연극에 고도(高度)로 발달되엇으므로 그흐름에 조선에로 데려오려고 보는데 조선에는 실현될 기반이 적은데 동경에가게되어서 신극운동을 통해서나 방학때 귀향해서 공연하는데 조선에대한 지식이 뚜렷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원인이 되는것입니다.

金旭 창작극을 만히 하구 싶어도 창작자의 희곡이 적으니까 번역극을 하게됩니다.

朴東根 그것이 조선의 「칼리」문제지오. 『동경적으로 어느것이 조혼가 하는것은 연극에서 선의 경지를 설정하고 연구를 주로 상연하는것이어야 합니다. 학생극(學生劇)에 주위 환경으로 연구(研究)와 창작연극에 대해서 정황만하게 연극(演劇)에 적어야 연극의 진흥(進興)이 되어야 하기에 힘쓰겟습니다. 서로만이 됩니다.

記者 그럼 이만하겟습니다.

厚昌

厚昌營林署大黃野 林業請負業 朴弘秀

厚昌邑內 林業 金明律

厚昌郡廳 職員一同

厚昌邑內 玄明浩商店

厚昌邑 高永國商店

厚昌面南邑 林業 金鍾星

厚昌郡東興面 林業 姜永鍾

厚昌小學校 金成斗

厚昌邑內 林業 朱鴻健

東興面 韓德榮

厚昌面職員一同

陳中市 金在厚

裵昌院

厚昌邑內 各學校一同

東興 孫奉權

厚昌郵便局 職員一同

厚昌邑內 大興運送部

厚昌邑內 同興德商店

厚昌邑內 梁成珍

厚昌邑內 李炷豊

厚昌小學校 金泳植

厚昌邑內 永德商會支店

厚昌邑內 月星時計店

厚昌邑內 古城金物支店

厚昌郵便局 張守均

厚昌邑內 田秉稷

厚昌大同學 劉明珍

厚昌邑內 胡一龍

厚昌邑內 金丙律

厚昌邑內 鴻德東商店

厚昌邑內 北鮮物產商會

厚昌邑內 福茂永商店

厚昌邑內 津山義松

厚昌郡東興 華盛豊

東興市 車殷軾商店

陳中 明月館

陳中 金信鳳

陳中 李寅慶

陳中 金內化

沔川

沔川市 三和醫院

唐津郡教育會

沔川面城下里 徐奎錫

唐津郡沔川山林保護區 金得倉 姜益善 鄭一秀 印炳煥 李龍勳

沔川繁榮會

沔川消防組 幹部一同

沔川公立實修學校

東中大里 印東森

朴炳夏

沔川面城下里 李海喆

城下里 全西耕

順城面白石里 具仁書

洪淳滴

文奉里 具命書

東里 辛宗鉉

沔川市 杜鵑酒造會社

順城面三月里 李在錫

順城 李熺

精米間屋 金榮植

順城面白石里 金永達

順城釀造場

沔川市 金成商店

沔川市 豊盛製

豊盛里 李在日

歸 ◇ 樵 ◇

人口四十萬目標로 大釜山建設을促進

卅年計劃을廿五年에完成

工事費三千餘萬圓

大工場을誘致 第二釜山을建設

도시계획령이외지역에설치 釜山府當局시計劃

群山花街不景氣로 花代萬餘圓減少

一日 매개의 수입은 석가

鑛業者들會集코 産金奬勵策懇談

총독부산금계획중심으로 慶、道서意見交換

租檢、共販에波瀾萬丈

檢查員의職權濫用으로 長城農民損害不少

太海丸火因未判

자연발화? 실화?

戰利品展覽會 釜山에서開催

慶北今年度豫算 千萬圓으로落着

去十日에査定完了

嚴冬에燃料難尤甚

石炭없어煖爐에불을못때 추위에떠는開城府民

七百儒林動員하야 明德會를結成

丸木協會總會 十六日公會堂에서

왕겨價昂騰一路

한섬에一圓五十錢

琺瑯鐵器、電球等 輸出貿易額激減

百七十餘萬圓減少

어린애의젖값없어 賣笑하다窃盜

釜山署嚴重說諭

電話加入者에奉仕 交換事務强調施行

客臘仁川金融狀況 豫金增貸出激減

旅館에嬰兒遺棄코逃走

大邱에생긴棄兒의新戰術

時間과電話問題 日平均六百回

應召將兵家族慰問

釜山牧島船溜에서 船舶衝突大破

손해는약二百원

釜山府新年度豫算 三百五十萬圓推定

豫算查定을進行中

靑陽에地震

客臘仁港出廻穀物 三萬八千餘石減

生産者賣惜이原因

陽曆過歲九割五分

醴泉農村活況

入學願書受附日割 永登浦各町會發表

第三回 全仁川氷上大會

▼時日 一月二十二日午前十時

▼場所 仁川運動場 "링크"

▼參加金 一人 三十 錢

▼主催 仁川 體育 會

▼後援 朝鮮、每新、東亞支局

沃素療法 梅毒療法治療用

毒掃丸 重症用

梅毒과體毒에効果優秀한

適應症

東京市神田區花房町 株式會社 山崎帝國堂

病毒 梅毒の 恐るべき禍ひ

病氣らしい病氣もないのに

병다운병도없는데

이런症狀의 包圍障에 辛苦하는분은

注意!

戰時米穀問題展望
現行統制法의自然的破綻
(三) 張鉉七

從來의 米穀政策의 法的基礎는 米穀統制法을 主柱로하고 米穀自治管理法、米穀配給調整法等이 이米穀統制法에對하야 補助的役割을 演하여왓던것이다。

保障한 …… **今年度** …… **勤勞者** …… **그러나** …… **最高價** …… **强力的** ……

迫擊砲
◇朝鮮米의 輸出이 上旬에 昨年에 比하야 十八倍나 急增
◇東銀、漢銀의 增配는 絶望

上旬、朝鮮米輸出量
此前年十八倍로急增
……移出만은依然히區區不振……
粟輸入도繼續漸增

一月上旬 朝鮮米의 輸移出量은 米輸出에잇어서는 一萬一千五十二石으로 前年同期 六百四石에比하야 一萬四百四十八石增으로 約十八倍의 急增을 보혓으며 十一月以降累計에잇어서도 …… 實로三百三十四割의 增加이엇으며
米移出 에잇어서는 …… 依然 移出米의 不振을 繼續中이고
米輸入 은 ……
米移入 은 ……
粟輸移入 에잇어서는 ……

農倉業者로서의農會
荷爲替取組行爲無妨

畜産計劃을大擴充
二百五萬圓의豫算으로
技術者도二百八十名으로大增員

棉實百萬斤
中支那로發送
烏致院外二個處서

原皮統制會社
設立準備進捗

無煙炭組合
東京에서總會
廿五、六日開催

朝鮮銀行券收縮
比昨臘二千萬圓減

煙草賣上著增

南大門金組理事
畢竟辭任를提出

鍾紡二千五日總會

東銀과漢銀의
增配는絶望
來期以後에나期待

京城組銀의
證券手持少減

廿七日漢銀總會

貯銀預積金現況

廿六日貯銀總會

漢江水電拂込마음

最近의米行
入庫激增

財界瑣信

魚粉統制의主體
朝鮮本位가妥當

昨年今日•今年今日
(一月十二日)

		昨年	今年	比較
◇株式 (前止單位圓)	東新	37.3	33.0	4.3低
	中新	171.1	126.1	45.0低
	鐘紡	279.0	145.2	133.8低
◇期米 (先期十石單位圓)	仁川	32.28	33.89	1.61高
	大阪	34.98	36.24	1.26高
◇正米 (丸仁三等單位圓)	京城	31.70	33.65	1.95高
	仁川	31.70	33.65	1.95高
◇正租 (穀良都三等單位圓)	京城	8.80	9.65	85高
	仁川	8.95	9.65	70高
◇純金 (市中賣單位圓)	京城	14.40	14.90	50高
	東京	14.30	14.60	30高
◇綿布 (京城標準單位圓)	三A	22.0	—	—
	太極星	22.0	—	—

今日의市況
【一月十二日】
株式 (單位十圓) / 期米 (單位十石) / 正租 (仁川) / 正米 (單位三等) / 商品 (單位十圓)

株式
時勢와市況
鐘新中心 續高

前場引進 ……
堅實續騰 ……
後場伸惱 ……

財◇海◇餘◇波

一部警戒人氣

期米
後場小高
伸惱

前場伸惱 ……
後場買進 ……
賣買漸漸閑散 ……

仁川人氣伸惱

國債
保合不變

○桑野取引店

米豆餘塁

正米
各地 小弛

京城底堅 ……
仁川强保 ……
群山小高 ……
木浦强調 ……
釜山强調 ……

各限保合

內外金銀時勢
(一月十二日)

海外金銀	倫敦銀塊一온스	[illegible]
	倫敦金一온스	[illegible]
	倫敦金塊	20片16分5
	紐育銀塊	42仙4分3

京城金銀	買	賣
	14.50	14.90
	12.90	13.90
	11.50	12.75
	10.35	11.00
	5.00	5.85
	20.00	25.00
	.175	.185
東京金銀 純金	14.30	14.60
純白金	22.00	25.00
純銀	.185	.195
買入 朝鮮銀行	一五	3.85
日本銀行	一五	3.85

海外經濟
金融
商品
正米
雜穀
期米
株式